

국가 및 기업 리더십에 관한 설문조사

2007 한국정치학회·한국경영학회 공동심포지엄
"정부와 기업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리더십:
외환위기 10년 평가와 전망"

2007년 11월 2일
김정수
중앙일보 경제연구소

설문조사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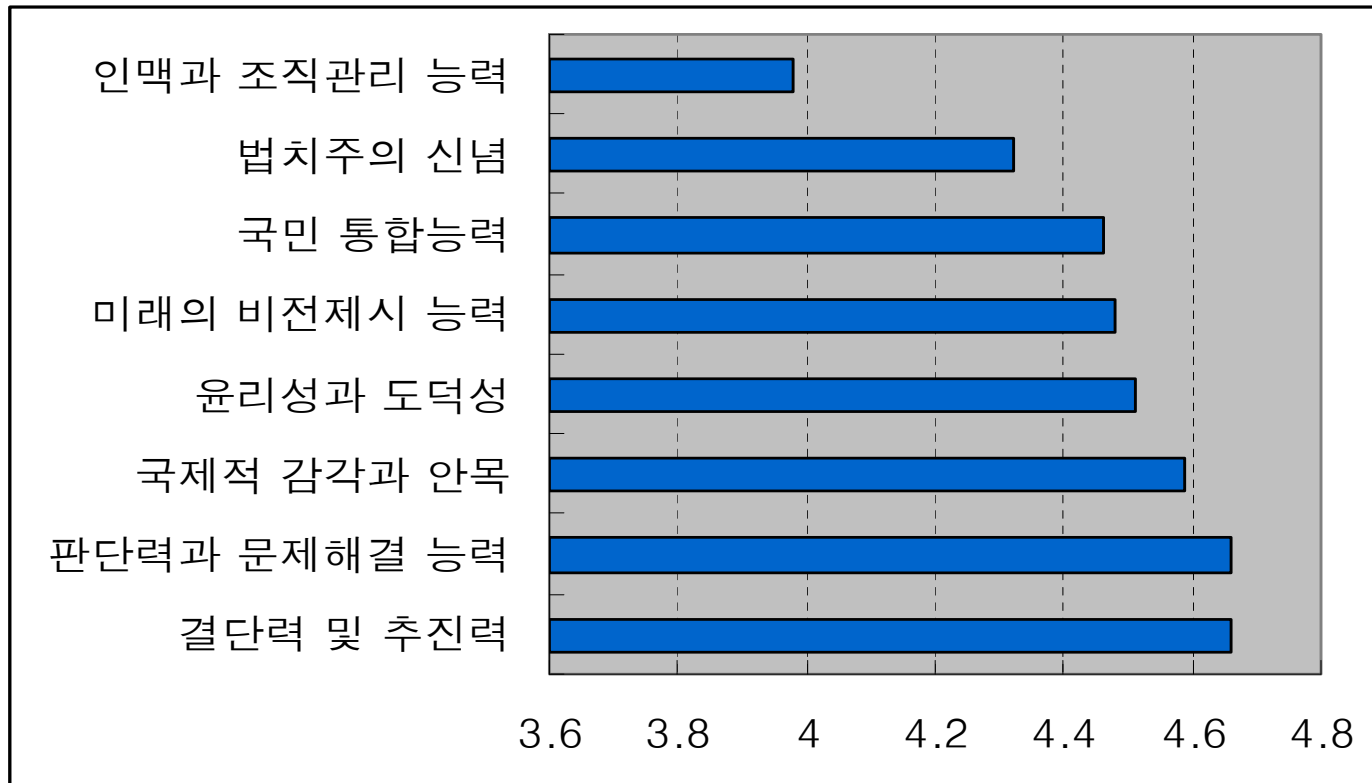
- 조사시기: 2007년 10월 25일
- 조사대상: 전국 695명 성인
 - 남자(49.1%) 여자(50.9%)
 - 20~30대(45.5%) 40~50대(37%)
60대 이상(17.5%)
 - 중·고졸(43.7%) 대학 이상(55.8%)
 - 대도시(47.2%) 중소도시(54.4%) 읍면동(7.4%)
 - 수도권(49.9%) 비수도권(50.1%)

설문의 내용

- 국가 및 기업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에 관해 각각 8개 항목에 관한 우선순위
- 국가와 기업의 리더십에 관한 공통 설문 5개 항목
미래 비전 제시능력, 국제적 감각과 안목, 윤리성과 도덕성, 판단력과 문제 해결능력, 인맥과 조직관리 능력
- 국가 리더십에 고유한 설문 3개 항목
결단력과 추진력, 국민통합능력, 법치주의에 관한 신념
- 기업 리더십에 고유한 설문 3개 항목
고객중심 경영철학, 새로운 사업 발굴, 성과위주 경영

국가 리더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

국가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과 역량의 개별항목에 관해 '전혀 중요치 않다'는 1점, '매우 중요하다'는 5 점으로 평가하는 경우



기업 리더십에 관한 설문조사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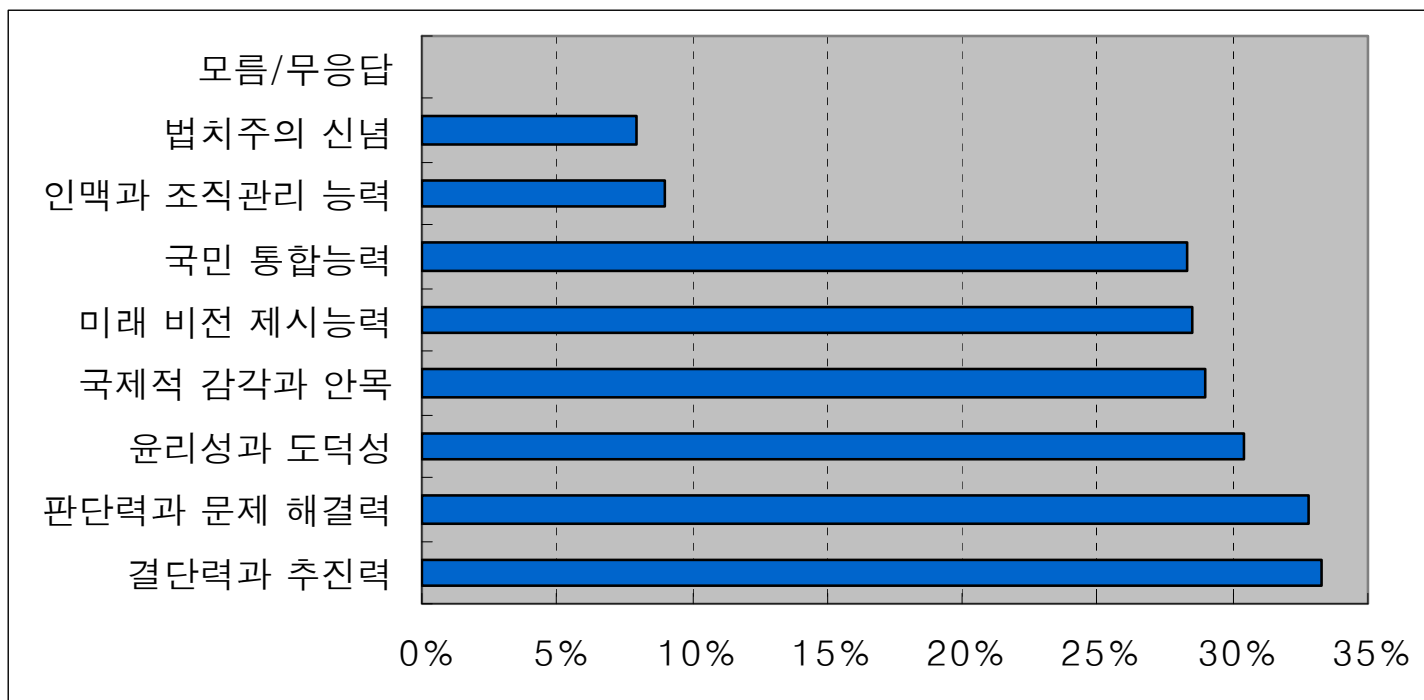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조사결과

‘중요하다’는 답변과 ‘매우 중요하다’는 답변의 비중

설문항목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이상
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	*86.9%	*93.5%	*92.1%	*92.4%	*88.1%
고객 중심 경영철학	76.8%	88.7%	86.9%	82.0%	85.8%
국제적 감각과 안목	80.8%	85.1%	*87.4%	87.7%	80.4%
미래의 비전제시 능력	*88.2%	*91.2%	86.8%	84.7%	85.2%
윤리성과 도덕성	63.0%	77.0%	80.1%	81.3%	84.5%
새로운 사업 발굴	80.2%	80.0%	80.5%	*88.3%	*89.1%
성과 위주 경영체계	51.6%	58.3%	64.0%	69.0%	74.2%
인맥과 조직관리 능력	84.3%	85.6%	69.9%	66.0%	68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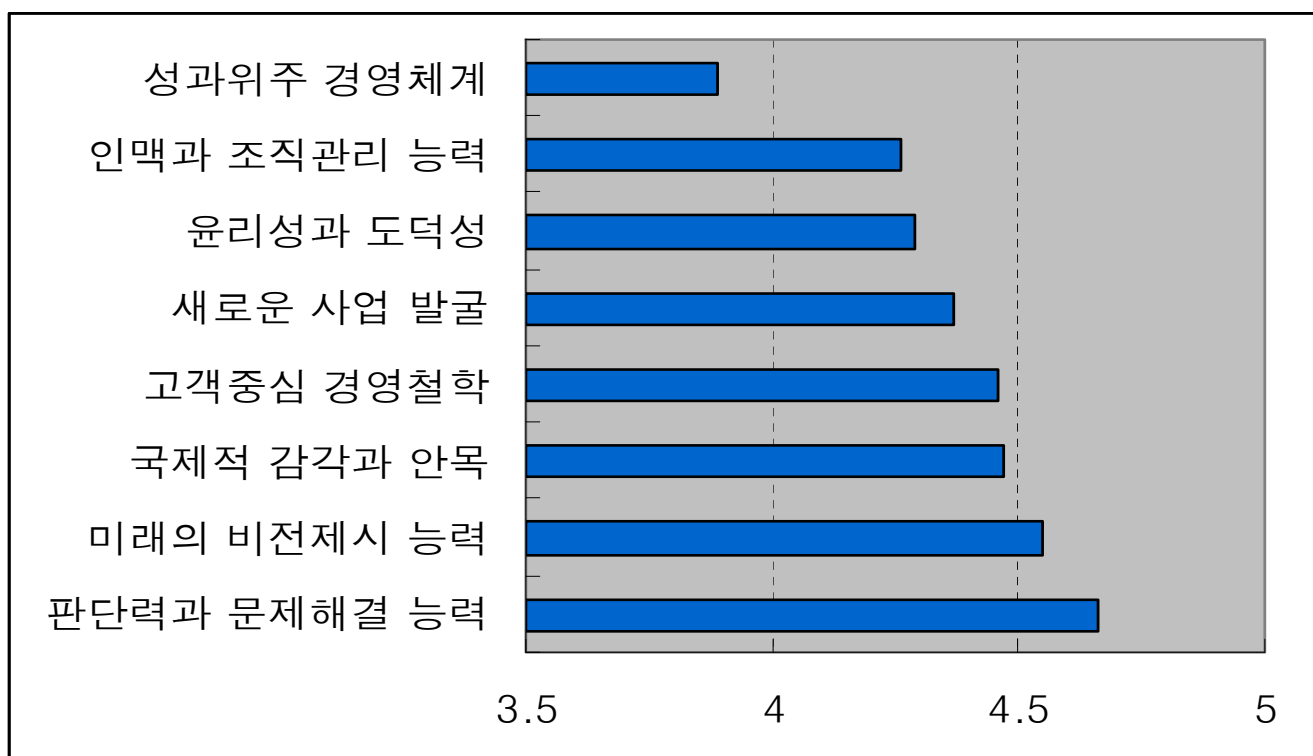
국가 리더십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3

국가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 8가지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2가지 선택하는 경우



기업 리더십에 관한 설문조사 1

기업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과 역량의 개별항목에 관해 '전혀 중요치 않다'는 1점, '매우 중요하다'는 5 점으로 평가하는 경우



기업 리더십에 관한 설문조사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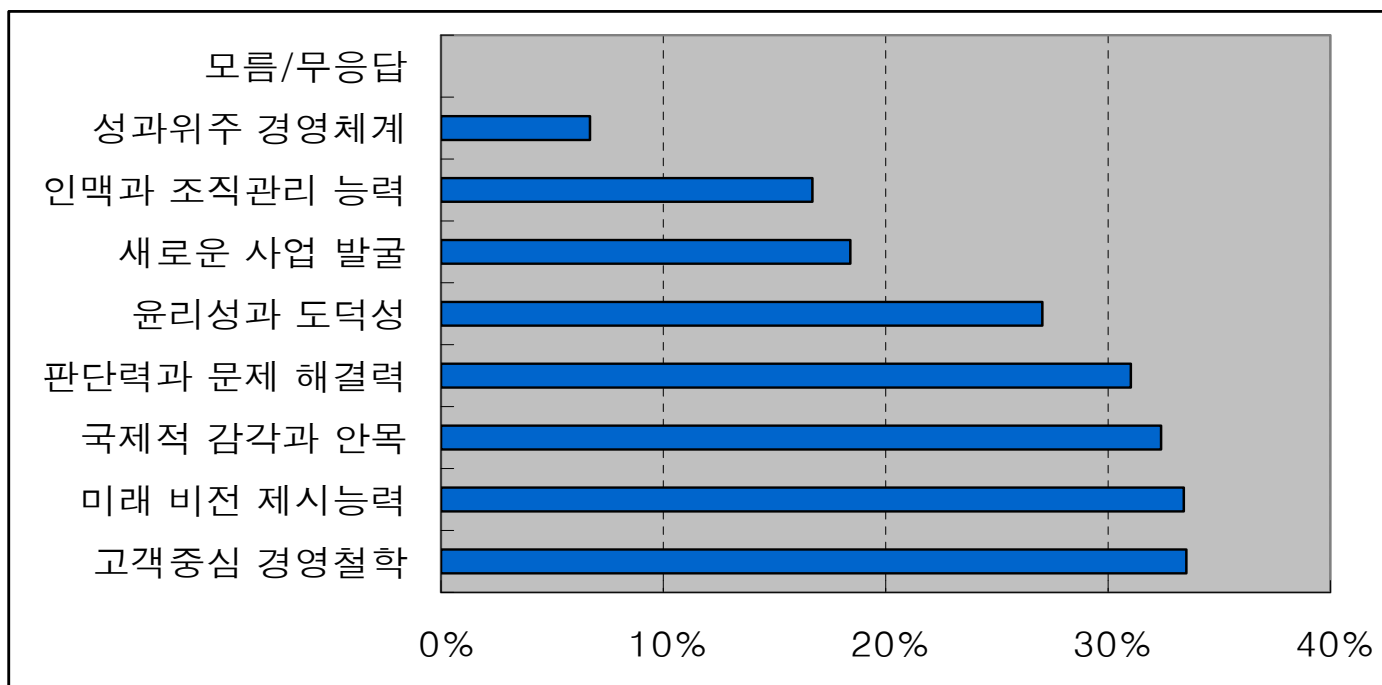
연령별 조사결과

‘중요하다’는 답변과 ‘매우 중요하다’는 답변의 비중

설문항목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이상
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	*86.9%	*93.5%	*92.1%	*92.4%	*88.1%
고객 중심 경영철학	76.8%	88.7%	86.9%	82.0%	85.8%
국제적 감각과 안목	80.8%	85.1%	*87.4%	87.7%	80.4%
미래의 비전제시 능력	*88.2%	*91.2%	86.8%	84.7%	85.2%
윤리성과 도덕성	63.0%	77.0%	80.1%	81.3%	84.5%
새로운 사업 발굴	80.2%	80.0%	80.5%	*88.3%	*89.1%
성과 위주 경영체계	51.6%	58.3%	64.0%	69.0%	74.2%
인맥과 조직관리 능력	84.3%	85.6%	69.9%	66.0%	68.4%

기업 리더십에 관한 설문조사 3

기업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 8가지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2가지 선택하는 경우



설문결과 해석

<설문의 내용>

8개항 질문: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시대정신을 읽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시한 설문조사임.

공동질문: 특히 업무 수행능력과 도덕성에 관한 답변에 관심을 두었음.

국가리더십 고유설문: 국민과의 소통능력 내지 사회통합능력에 관한 일반인의 기대가 어떤가 알고 싶었음.

기업리더십 고유설문: 기업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물어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정서를 알고 싶었음.

<국가 리더십 1: 개별항목>

개별항목들에 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, 업무수행 능력이 강조되는 가운데, 골고루 다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.

<국가리더십 2: 연령별>

연령별 조사결과를 보면, 모든 연령층이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, 단지 30대가 미래의 비전 제시 능력을, 그리고 고령층이 국민통합능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.

<국가리더십 3: 개별항목간 우선순위>

개별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결과도 개별항목과 연령별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.

한마디로 모든 자질을 기본적으로 골고루 다 갖출 것을 기대한다는 것임. 이 같은 결과는 일반인이 국가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역량이 점차 수렴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함.

통계적으로 유의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, 대체적으로 미래와 국제 지향적인 인물 또 변화 보다는 맡은 바 현재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인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 그만큼 국가 지도자가 실용적인 인물이기를 바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, 이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여타 여론조사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임.

<기업 리더십 1: 개별항목>

국가 리더십보다는 항목간에 차이가 좀 더 크지만, 그래도 중요한 자질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기업 지도자이기를 기대하는 점은 같음.

<기업 리더십 2: 연령별>

모든 연령층이 기업 지도자의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, 20~30대는 미래 비전 제시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, 50~60대 이상은 새로운 사업 발굴 능력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를 보임.

<기업 리더십 3: 항목간 우선순위>

앞서 말한 대로 기업 지도자도 좋은 자질과 역량을 골고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.

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객을 위해, 미래와 세계를 내다보면서 사업을 잘 꾸려가는 인물이 기업 지도자이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결과임.

국가 리더십에 관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, 국가리더십보다는 기업 리더십에 대해 윤리성과 도덕성에 관한 기대가 덜하다는 점, 또 미래 비전 제시와 국제적 감각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한마디로 반기업정서가 걱정하듯 그렇게 심하지 않고, 국가 지도자보다는 기업 지도자들이 더 진취적이기를 기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.